

세계 최대규모의
역사적인 엑스포가
2030년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BUSAN WORLD EXPO 2030

부산체육인은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를 염원합니다.

부산체육 2018 03+04 vol 12호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목차 contents

부산체육

부산체육 2018 03+04 통권12호
발행일 2018년 4월 2일(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12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집인 송미현 편집·취재 박주현, 최상우, 김인근, 하나근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T.051-500-7900 F.051-500-6306)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디자인기획 대훈기획 (T.051-898-0330)

사람과 사람 PEOPLE & PEOPLE

- 02 파워 인터뷰I 부산광역시체육회 조성제 부회장
- 04 파워 인터뷰II 부산광역시스키협회 김태순 회장
- 06 이달의 칼럼 언론사 기자 (부산일보 : 민소영 기자)

이달의 이슈 ISSUE INSIDE

- 08 한국 체육의 미래, 학교체육 활성화에 달렸다. 대한체육회 이기홍회장

스포츠 속으로 SPORTS INSIDE

-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부산의 스포츠 소식 BUSAN SPORTS PANORAMA

- 14 2018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 16 2018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
- 18 2018 청소년스키교실
- 20 제10차 이사회
- 21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 22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수영대회
- 24 부산스포츠클럽 / 2018 스포츠체험활동
- 26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을 왜 바꿔야 하는가
- 28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 30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 32 구·군체육회 소식
- 34 2018 회원종목단체 총회

스포츠 뉴스 소식 NEWS PANORAMA

- 50 2018년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 개최
- 51 스포츠 외교의 장, 한국의 밤 개최
- 52 김민석 선수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
- 53 대한체육회, 제3기 대학생 명예기자단 모집
대한체육회,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출범

이달의 스포츠 EXERCISE METHOD

- 54 자전거의 이해와 활용

책 속으로 BOOK

- 58 이달의 추천도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조성제 부회장



생활과 체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부산광역시체육회 조성제 부회장

Q.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의 직책을 맡으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우선, 체육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 근무가 자리 잡으면서 생활체육이 여가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변에 마음 놓고 이용할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시민들은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운동이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부산도 이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건강하며 활기 넘치는 도시로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 체육을 책임지는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시키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그렇다면 인간에게 체육의 가치는 무엇이며 그 발전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체육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땀 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체육 활동을 통해 협동, 끈기, 도전정신 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체육의 마지막 종착지는 우리 생활과 함께하는 체육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체육 저변 확대가 시급합니다. 체육 시설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의성 시골 출신의 컬링 선수들이 동계올림픽대회 은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컬링 전용 경기장이 의성에 건립되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설초기만 하더라도 예산낭비라는 말과 함께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경기장이 생기고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으로 컬링을 접하게 된 것이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과 시민들이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건립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체육이 우리 생활 깊숙이 뿌리 내린다면 체육 본연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체육인으로서 즐겨하시는 운동(여가활동)과 본인만의 건강 관리법은 무엇입니까.

평소 수영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수영을 하면서 체중을 관리할 수 있고, 체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대내외 행사와 바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수영으로 다져온 기초체력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날씨에 제약 받지 않고, 관

절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사람들에게도 수영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수영을 하면 상쾌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가 활동으로 스크린 야구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안타를 치고 점수를 내면 스트레스도 함께 날아갑니다.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스크린 골프나 스크린 야구를 즐기기도 합니다. 접근성이 좋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아닌 실제 필드에서 운동할 여건이 안 된다면 스크린 골프와 야구도 훌륭한 체육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대학교 시절, 동아리 활동으로 펜싱과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펜싱이라는 운동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펜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있었다면 ‘펜싱을 즐기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펜싱협회 회장으로서 펜싱종목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어 수영이나 골프처럼 여가활동으로 시민들이 널리 즐기는 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Q. 부산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부회장님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 생활 체육을 즐겼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이 건강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보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다양한 체육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선진체육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산광역시스키협회
김태순 회장



스키 황무지의 파이오니아

부산광역시스키협회
김태순 회장

영화 '컬러닝'은 눈이라곤 본 적도 없는 카리브 해에 위치한 열대 섬나라 자메이카의 젊은이들이 봅슬레이에 도전해 다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도전에 성공하는 스포츠 영화이다. 카리브 해 만큼은 아니지만 부산은 눈이 오지 않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겨울 스포츠에 관심이 덜하며 겨울 스포츠 시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열리는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이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숨은 공신이 있음을 증명한다. 지금은 대중적인 스포츠이지만 여전히 부산에서는 희소성이 있는 스키, 부산광역시스키협회 김태순 회장을 만나 보았다.

우연찮게 만나서 평생의 동반자로

벌써 26년 전이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국내 한 스키장을 방문하였다. 이후 스키종목에 관심이 생겨 스키 보급에 앞장서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었고 제가 그 일을 하게 됐다면, 그게 '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오랜 시간 함께한 스키는 현재 김태순 회장의 분신이 되었다고 한다.

부산에 스키라고요?

눈이 오지 않는 도시, 스키의 불모지 부산에 스키협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될까? 으레 스키라는 스포츠가 있으니 그에 관련된 기관도 있겠지, 그 정도일 터. 하지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이 거두는 상위권의 성적에는 분명히 숨은 비결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 김태순 회장은 '아낌없는 지원'이라고 답했다.

"부산은 스키 환경이 열악하지만 늘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부산광역시스키협회가 우수 선수 발굴·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장배 스키대회에서 수많은 스키 유망주를 배출하였으며, 부산의 확실한 동계스포츠 협회 종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강영서, 김마그너스가 부산출신 선수로 활약하였다.

메달을 향해 나아가다

김태순 회장의 오랜 숙원은 동계올림픽대회에서 부산선수가 스키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다. 세계의 화합과 평화의 취지인 올림픽대회의 참가도 중요하지만, 한국 스포츠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더욱이 그 선수가 부산 출신이라면 금상첨화라고. 이러한 믿음으로 명백한 목표가 있었기에 30년 가까이 스키에 몸담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태순 회장에게는 임기 내 이뤄야 할 목표가 하나 더 있다. 부산에 특출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있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전향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김태순 회장은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언론과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 열심히 뛰어다니며 도움과 지원을 청해 부산 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부산에 스키 학과라고? 부산시민들의 인식도 있고, 전례가 없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태순 회장의 신념에 찬 표정에서 스키 불모지 부산에 좋은 소식이 들릴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불모지에서도 꽂은 피어난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때.

'피겨 여왕' 김연아의 금메달 시작은 동네 빙상장이었다. 1995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시민회관과 함께 빙상장이 준공됐다. 국내에 빙상장이라곤 서울 목동과 잠실 등에 몇 군데 있던 시절이었다. 600억 원이라는 투입 예산은 당시에도 거액의 돈이었다. 인구 7만 명의 도시에 과잉 투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그 빙상장에 과천에 사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들러서 얼음을 지치기 시작했고, 점차 안양·군포 등 인근 어린이들도 놀이 삼아 스케이트를 타러 찾아왔다. 군포에 살던 7살 김연아도 1996년 엄마의 손을 잡고 처음 찾아간 과천 빙상장에서 우연히 스케이트를 신었다. 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탔던 중 그의 재능을 알아본 류종현 코치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선수의 길을 걷게 됐다. 피겨 역사가 시작된 순간은 작고, 단순했다. 그러나 과천 빙상장이 없었으면 김연아가 있었을까.

인재의 수도권 유출에는 이유가 있다

겨울스포츠와 부산을 엮은 기사에서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불모지'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지도자들은 붙잡을 도리가 없다. 선수와 지도자간의 신의(信義)에만 의존해 선수를 키우는 방식은 얼마나 오래 존속할 수 있을까.

부산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국가대표급 빙상 종목 선수를 다수 배출한 광역도시가 한 곳 있다. 수많은 쇼트트랙 선수와 지도자들의 산실로 꼽히는 대구다. 그런 대구도 최근 선수 명맥이 끊겼다는 아우성이다.

1990년대 초 실내빙상장이 문을 열면서 대구는 빙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일찍이 구축했다. 한때 '쇼트트랙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열풍이 일던 대구였지

장을 둘러싸고 있는 아크릴판은 고무 패킹이 다 뜯기고 너덜너덜해져 오히려 스케이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쇼트트랙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부산 유일의 국제 규격 빙상장이라고 했지만 빙판 크기만 '국제 규격'일 뿐, 나머지는 국제 수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할 지경이었다.

더 놀랐던 건 북구문화빙상센터의 빙판이 무려 '12년 묵은 얼음'이라는 점이었다. 시설 관계자는 개장 이래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빙판 얼음을 녹인 적이 없다고 했다. 실내 빙상장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얼음을 모두 녹여서 시설 보수를 하고, 다시 얼음을 만들어 각 종목에 알맞게 빙질을 관리해야 한다. 부산의 유일한 국제 규격 빙상장의 시설 관리 수준이 이 정도라면, 부산이 동계스포츠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열악한 환경은 생활체육이 꽃 피우기는커녕 전문체육 유망주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 좋은 여건에서 훈련하겠다며 서울 등지로 유학을 떠나는 선수들을 지도자들은 붙잡을 도리가 없다. 선수와 지도자간의 신의(信義)에만 의존해 선수를 키우는 방식은 얼마나 오래 존속할 수 있을까.

부산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국가대표급 빙상 종목 선수를 다수 배출한 광역도시가 한 곳 있다. 수많은 쇼트트랙 선수와 지도자들의 산실로 꼽히는 대구다. 그

런 대구도 최근 선수 명맥이 끊겼다는 아우성이다. 오자마자 깜짝 놀란 건 눈으로도 바로 확인 가능할 정도의 시설 노후 수준이었다. 안전을 위해 경기

만,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다른 지역에 잇달아 최신 시설의 빙상장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인재(人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됐다.

생활스포츠와 삶은 마여지우가 돼야 한다

지난달 폐막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도 '동네 빙상장 출신' 스타가 화제였다. 중학교 때 방과 후 교실로 컬링을 배운 경북 의성의 동네 친구들이 한국 컬링 역사상 첫 올림픽대회 메달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전문 체육이 아닌 스포츠클럽, 즉 생활체육을 통해 컬링을 접하면서 재미를 붙이고 재능까지 찾은 이들이 이뤄낸 것이 '영미 신화'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4시트 컬링 전문경기장은 2006년 경북 의성에 세워졌다. 김경두 대한 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이 인구가 6만 명에 못 미치는 농촌에 생소한 컬링장을 짓겠다고 할 때 지역 여론은 달갑지 않았다. 그러나 의성컬링센터에서 꿈을 키운 경북체육회 컬링 선수들과 후원자들은 사비를 털어 장비를 사들이기도 하며 훈련에 매진했고, 끝내 값진 메달까지 따냈다. 경북체육회 컬링대표팀의 사례는 우리나라 체육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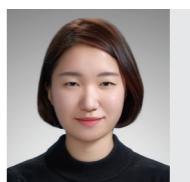
최근 부산진여고에 스키부가 창단된 데 이어 건국고에도 부산에서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남자 컬링팀이 생겼다. 부산에서도 학교체육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선수들을 일찌개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평창 열기'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선 여전히 시설 확

충과 선수 지원책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빙상 종목의 경우 일반인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국제 규격에 맞는 빙상장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있는 시설마저도 '적자 투성이'라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 일쑤다. 빙질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컬링의 경우 전용 경기장이 더욱 절실하지만, 부산의 컬링 선수와 동호인들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컬링 시트가 그려져 있는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일반인들의 이용시간을 피해 밤늦게 모여 단체 훈련을 한다. 한 지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해 좋은 성적을 내면 늘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부산에서'라는 찬사가 나온다. 그러나 정작 시설 투자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토로하기도 했다.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려면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녀노소 누구나 스포츠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스포츠 인구를 늘려나갈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에 힘입어 부산에서도 겨울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부산의 두 번째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가 있는 남구 백운포 체육공원 실내빙상장이 오는 5월 문을 열면 부산 시민의 4계절 겨울스포츠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림픽대회 금메달 개수보다 생활 속 스포츠 인구가 많은 곳이 '건강 선진국'이라고 나는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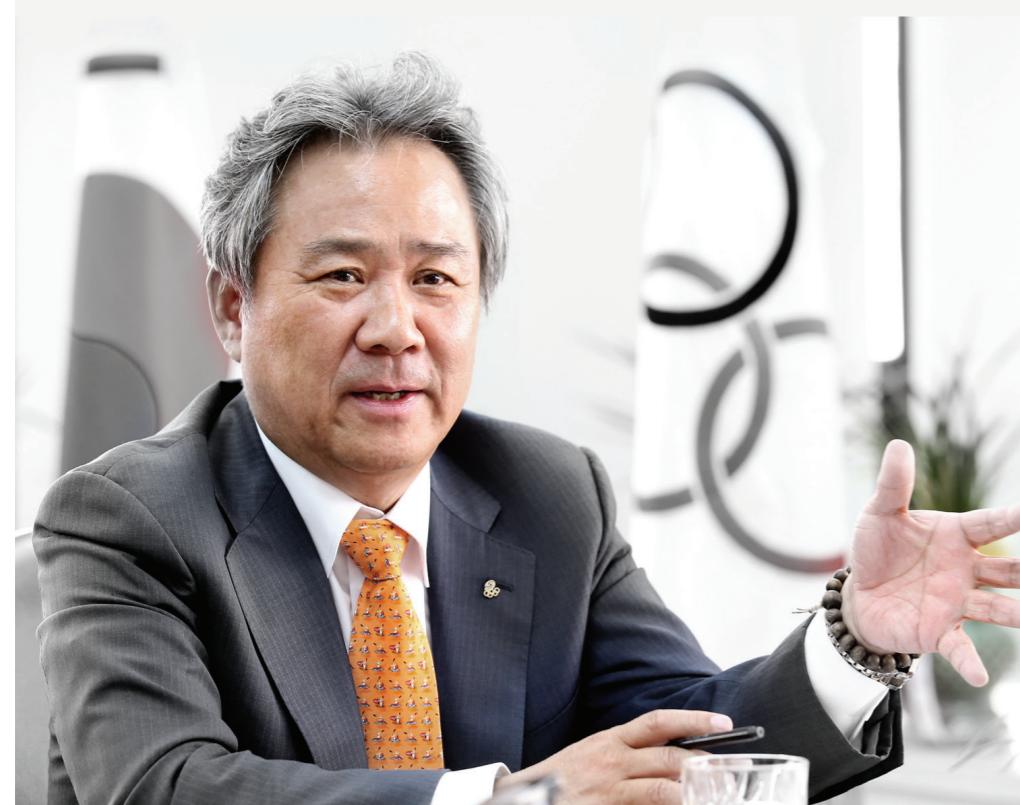
민소영
부산일보 편집국 스포츠부 기자

한국체육의 미래 활성화에 달렸다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에게 묻다

Q. 올해는 유독 대형 스포츠이벤트가 많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FIFA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까지 줄줄이 이어진다. 본격적으로 진천 선수촌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기도 하다. 땀 흘려 준비한 만큼 결과에 대한 기대도 클 것 같다.

지금은 모든 역량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그렇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아시아경기대회가 8월이면 개막한다. 이제 6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면 창원 세계사격선수권이 있고 내년에는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스포츠 빅이벤트가 벌어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시각을 조금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한국은 하계, 동계올림픽대회와 축구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

Q. 일본의 최근 상승세는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체육정책의 중심축이 생활체육에서 다시 전문체육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반면 전문체육을 육성해 꾸준히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한국은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인해 예전만큼 전문체육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언급한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부분이 있을 듯하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더 비중이 실리고 전문체육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통합의 취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시너지를 내자는 것이다. 전문체육은 그동안 해왔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문제는 원활하게 선수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체육이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전문스포츠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 한 자녀 가정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하나 뿐인 자식에게 운동을 시키지 않으려 한다. 이처럼 스포츠 인프라가 취약하여 좋은 선수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수에 집중투자해 결과를 얻어냈다. 그 소수의 자원을 확산시켜야 한다. 생활체육시스템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운동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으며 관련 자료도 많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병원에도 덜 간다. 의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든다. 국민 복지 차원에서 투자가 아깝지 않다.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그 결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다.

Q.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결고리가 있다. 양쪽이 다 잘 되기 위한 기본은 학교체육이다. 학교체육이 제대로 뿌

리를 내려야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 운동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을 만들 수 있다.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확산된다. 지금은 교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포츠 지도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전국 5,800개 초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스포츠 관련 방과후 교사는 2,1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토요일 오후에 잠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강사가 5,500여 명이다. 이 정도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초등학교 기준으로 작은 학교는 1명, 대도시의 경우 한 학년에 최소 2명 정도, 학생수가 많은 곳은 3~4명 정도는 있어야 실질적인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요일만 근무하는 비정규직 강사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겠나.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초등학교에만 최소 2만여 명의 운동강사가 필요하다. 5,00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되면 중·고교까지 커버할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이름으로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 놀면서 월급을 받지는 않을 것 아닌가. 운동하는 아이들을 모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은 전문형 스포츠 클럽으로 이끌 수 있다. 학생들의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를 통해 협동심과 단결력을 키우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자세와 좋은 인성, 민주적인 소양을 갖춘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혼자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례도 나온다. 행정처리만 하기에도 벅차다. 교원자격을 줄 수 없더라도 신분이 안정되게 정규직으로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이들이 직업의식을 갖고 부정부패에 휘말리지 않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부합된다.

아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한국 금5, 은8, 동4 획득 메달순위 7위



전 세계인의 거울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지난 2월 25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93개국, 2천 925명의 선수가 참가해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올림픽대회'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입장권 판매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회 기간 12개 경기장과 평창 올림픽플라자, 강릉 올림픽파크 등에 9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빙상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신기록이 양산되는 등 풍성한 기록 사냥 대회로 남게 됐다.

아울러 남북 분단 상황에서도 테러 없는 최고의 '안전 올림픽대회'와 철저한 도핑 검사로 어느 대회보다 약물 없는 '클린올림픽대회'로 치러졌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깜짝 성화 점화로 큰 주목을 받았던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도 화려한 무대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이모저모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이후 30년 만에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7개 종목(15세종목)에 역대 최다인 144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평창과 강릉, 정선 일원에서 열린 올림픽대회는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대회 운영과 흥행, 기록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와일드카드(특별참가권)를 받은 북한의 선수 22명이 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국제 대회 개막식에서 남북 공동 입장이 11년 만에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단은 참가국 중 마지막인 91번째로 입장하였고,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석해 스포츠를 통한 화해인 '평화

미래의 물결 주제로 폐막식 펼쳐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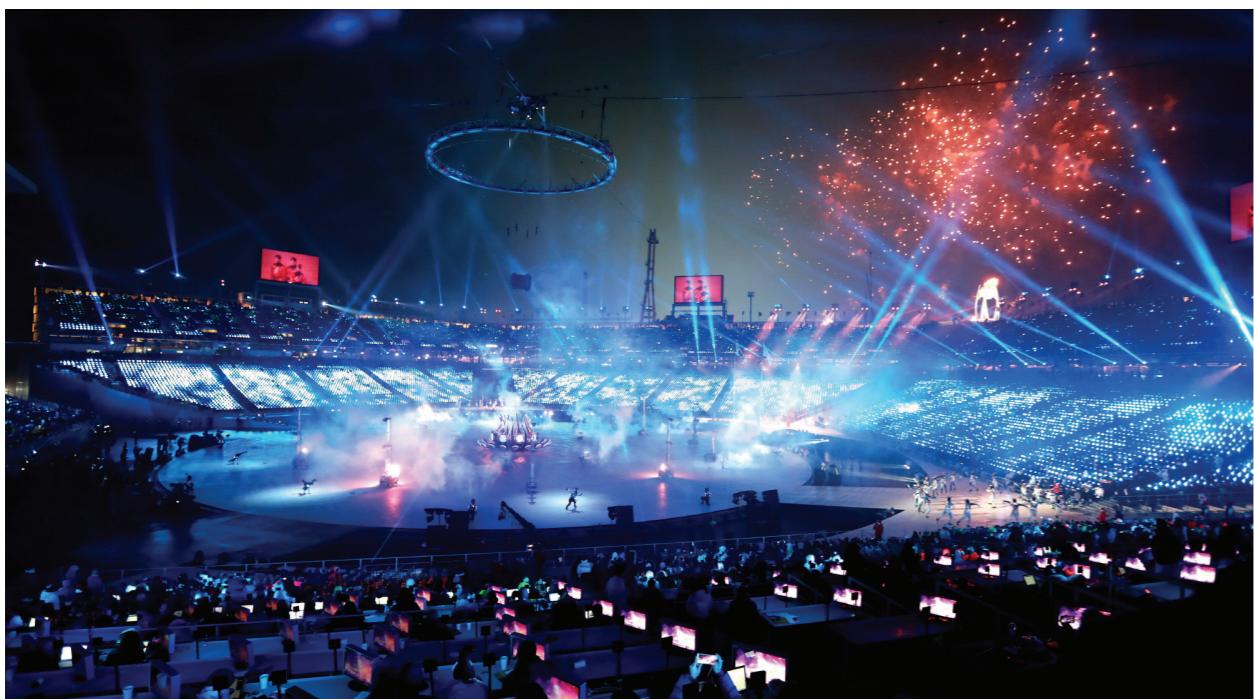
기준의 틀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도전정신을 의미하는 '미래의 물결'을 주제로 한 폐회식에서는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관람객 등이 하나로 어우러져 평창에서의 작별을 고했다.

총 4개의 문화공연으로 구성되는 폐회식에선 평화의 메시지를 한국적인 색채와 혁신적인 현대 아트의 결합, K팝 공연 등을 통해 현대적이고 미래적으로 표현해 박수를 이끌어 냈다.

한류스타 엑소와 씨엘이 출연해 폐회식 무대를 함께 했고, 201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대회에서 뛰어난 연출 능력으로 호평을 받은 장이머우(張藝謨) 감독이 2022년 차기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도시인 베이징을 알리는 공연도 선보였다.

또 개회식에서 평창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드론쇼가 다시 한 번 펼쳐졌고, 각국 선수단이 함께 어우러진 선수단 입장을 비롯해 신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선출, 자원봉사자 치하 등의 공식 행사도 진행됐다.

폐막식에서는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든 기수 입장에 이어 다른 나라 선수들과 집단으로 입장했다. 마지막 순서에는 EDM DJ가 진행하는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출연진, 선수단이 하나가 돼 폐회식의 절정을 이뤘다.





대한민국 선수단 사상 최다 메달 신기록

대한민국은 당초 대회 직전 흄이점을 바탕에 두고 이른바 8484를 내세웠는데 금 8, 은 4, 동 8, 메달순위 4위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목표성적이었다. 그러나 금메달 텃밭으로 평가받던 쇼트트랙에서 당초 목표보다 적은 금메달을 수확해 금메달 수는 5개를 기록하며 메달순위 7위를 기록했다. 금메달 개수만 따지면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의 6개보다는 1개가 적었다.

그러나 메달수는 총 17개를 따내면서 대한민국 동계올림픽대회 사상 역대 최다 메달수를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쇼트트랙 편식이 심했던 과거와 달리 총 6종목에서 메달이 나왔다. 썰매 종목인 봅슬레이, 스켈레톤에서 아시아 국가로선 사상 첫 메달을 수확했으며, 컬링에서 아시아 국가 최고 성적을 거뒀다. 그리고 이전엔 단 한번도 메달을 따보지 못했던 설상 종목에서도 메달이 나오는 등 과거보다 폭넓게 메달을 따는 데 성공했다. 또한 쇼트트랙보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더 많은 메달을 딴 최초의 대회가 됐다.

특별귀화 제도를 통해 많은 외국 선수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면서 그 동안 성적이 좋지 못했던 종목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귀화 선수들 중에서 메달을 따는 데는 실패했다.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귀화선수로는 독

일에서 귀화해 루지 대표로 참가한 에일린 프리쉐, 러시아에서 귀화해 바이애슬론 대표로 참가한 티모페이 랍신 등이 있으며 특히 랍신은 자신이 참가한 모든 종목에서 한국 기록들을 모두 갈아치웠다.

한편 한국 스키가 올림픽대회 메달을 딴 것은 1960년 스쿼밸리 대회에 참가한 이후 무려 58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 선수단 최고의 '골든 데이'로 기대했던 22일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와 쇼트트랙 여자 1,000m, 여자 500m에서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한 게 아쉬웠다.

하지만 윤성빈이 스켈레톤에서 아시아 썰매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한국 선수단 최고의 메달밭인 쇼트트랙에서 남자 1,500m(임효준), 여자 1,500m(최민정), 여자 3,000m 계주에서 값진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안방에서 대회 3연패를 노렸던 '빙속 여제' 이상화의 도전은 은빛으로 마감됐지만,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에서 금메달 못지 않은 은메달을 따내는 등 태극전사들의 투혼은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외신들의 호평도 쏟아져

외신들은 폐회식 현장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평화 올림픽대회'가 치러졌다고 호평을 쏟아냈다. 외신들은

특히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데 주목하면서, 이날 폐회식에 북측 고위급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남해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밝힌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언급을 긴급 타전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폐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남북 선수들이 태극기와 인공기, 한반도기를 함께 흔들면서 입장하는 모습을 전하는 한편, 하늘을 수놓은 올림픽대회의 수호랑 마스코트가 하트로 변하는 '드론쇼'에 감탄하기도 했다. 폐회식 공연으로 올림픽 스타디움 분위기를 한껏 띠운 K팝 스타 엑소와 씨엘에 대한 관심도 드러났다. CNN은 "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충격과 세계기록, 슬픔과 기쁨의 눈물들이 있었다"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2018년 평창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과 북한 고위급 인사들 사이의 온기는 별로 없었지만, 선수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활기찬 폐회식이 거행됐다"며 "한국이 치른 '평화 제전'이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폐회식 연설에서 이번 올림픽대회에 대해 "스포츠가 어떻게 연약한 세계에서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지, 스포츠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동계올림픽대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극찬했다.

AFP통신은 이날 VIP석에서 폐회식을 함께 관람한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 주목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와 블랙리스트라 불리우는 제재명단에 오른 김 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한 것은 스포츠가 끌어낸 외교술의 마지막 부분으로, 평창의 헤드라인을 지배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김 부위원장이 이날 폐회식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미국과 대화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한 대표단이 북미 대회를 위한 '문'을 열어젖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2월 28일(수) 오후 13시 30분 부산광역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임원 43명, 선수 190명 등 총 233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였으며 작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가 늘어나 전년보다 향상된 경기력을 보였다.

참고로 금년도는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로 공식순위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금년 대회에서 선전한 부산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해단식에는 대회 참가 종목단체 선수단 및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시상에는 스키의 정마리아(신도중3), 빙상의 김건희(만덕고2) 선수를 비롯한 입상선수 소속 학교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우리 부산 선수단이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한 입상선수 지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대회 4관왕을 차지하여 부산성적에 기여를 많이 한 스키 크로스컨트리 정마리아(신도중3) 선수를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하여 트로피와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산선수단에게 뜨거운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월 28일(수)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직무연수는 직무 능력을 더욱 높이고, 해당 업무의 숙달과 성취도의 향상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2018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

부산광역시체육회 2018. 2. 26.(월) ~ 27.(화) 코모도호텔 경주



회원단체 직무연수 개최

지난 2월 26일(월) ~ 27일(화)까지 이틀간 코모도호텔 경주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직원을 비롯해 구·군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사무국장) 등 실무자 12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2018년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 단체 직무연수”가 개최되었다.

이날 직무연수 청탁금지법 강의 및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체육인 소양 함양 및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 숙지해야 할 내용을 교육하였다.

제 1일차인 2월 26일에는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박종문 강사가 「청탁금지법과 지방보조금의 이해」 강연 및 부산광역시체육회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체교육으로는 개정된 회원단체규정 교육과 회원종목단체육성지원 설명, 전국체육대회, KSOC(대한체육회) 아젠다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구·군체육회 연간사업 설명은 별로도 진행되었다. 구·군체육회 연간사업 설명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구·군체육회 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2일차인 둘째날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선 강사의 4대폭력 예방 교육으로 직무연수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체육인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힘양하였으며 회원단체 간 정보 교류를 통해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은 “직무연수 개최로 회원단체의 실무능력과 행정력 강화는 물론 체육인의 소양 함양 교육을 통해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2018 청소년 스키교실 개최 겨울철 스포츠로 학업 스트레스를 날리다!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3일간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청소년 스키교실을 개최하였다.

지난 2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3일간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2018 청소년스키교실」이 열렸다. 스키교실에서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남·여중학생 60명이 참가해 하얀 설원 위를 달렸다.

청소년 스키교실은 부산지역 특성상 동계스포츠를 체험하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참여기회를 보급하여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은 스키 안전교육, 스키 등급에 따른 수준별 강습, 자유스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한 학생들은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청소년들은 전문 강사들의 지도 아래 장비대여, 장비작용방법, 리프트 탑승법 등을 배웠다.

2018 청소년 스키교실에서는 처음으로 스키를 접하는 초급자부터 능숙하게 스키를 타는 중·상급자 이상의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하얀 설원에서 추억을 쌓았다.

스키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은 3일간의 전문 강습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고 학업으로 지친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처음 참가한 학생들은 전문스키 강사를 통해 기본주행기술 강습에 만족하였으며, 자유스키 시간을 이용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인 지도를 받아서 좋았다면 내년 청소년 스키교실에도 또 한 번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 스키교실은 청소년들에게 협동심과 모험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참여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겨울철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 스포츠의 장으로 그 입지를 탄탄히 넓혀가고 있다.



제10차 이사회 개최 체육발전 위한 의견 나눠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월 26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및 이사가 참석했다. 이사회는 회장의 부재로 인해 송규정 부회장이 주재를 맡아 이사회를 진행하였다.

보고사항 및 심의 안건으로는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현황 보고와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등 현안 심의가 있었다.

심의 안건 시작은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안)과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이어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구성 시 비경기인 필수 포함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중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이 외에도 부산광역시체육회 대회참가 및 개최보조금 지급규정 폐지(안),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육성 지원 규정 제정(안) 등을 논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체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앞으로도 체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사회를 마쳤다

일자 : 1월 26일 장소 : 부산시청 26층 회의실

보고사항 및 심의 안건 :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현황,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현황, 회원종목단체 임원인준 현황,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중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대회참가 및 개최보조금 지급규정 폐지(안),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육성 지원 규정 제정(안), 부산국민체육센터 관장 임명동의(안), 정회원단체 가입 승인(안), 인정단체 가입 승인(안),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계획(안)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부산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논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하여 각 회원종목단체장 및 구·군체육회장이 참석하였다.

정기대의원총회에의 보고사항으로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결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 현황, 인정단체 가입 현황의 보고사항 발표와 함께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안),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약 중 일부 개정(안), 부산광역시체육회 감사 선임(안), 정회원단체 가입 승인(안)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부산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빌전방안으로 지원하는 『2017 지역스포츠클럽사업』에 선정된 부산진구 스포츠클럽에서 “제1회 부산진구 스포츠클럽 회장배 어린이 수영대회 및 부산진구 스포츠클럽 수영선수단 선발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대한수영연맹 비등록 선수로 부산진구 내 거주중이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 또는 부산진구 스포츠클럽의 수영강좌를 등록한 어린이가 참가했으며 약 100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였다.

참가 종목은 자유형 50m, 배영 50m, 평영 50m, 접영 50m로 남·여별 총 8개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개인별 기록 우수자에게 부산진구 스포츠클럽 회장상이 수여됐으며 부산진구 스포츠클럽 수영선수단의 입단 기회가 주어졌다.

부산진구 스포츠클럽 수영선수단 입단 시 훈련용품 지원 및 훈련장소 제공, 대회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혜택과 선수 출신의 우수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기회 등이 주어진다.

부산진구 스포츠클럽 회장은 “2017 지역스포츠클럽 사업에 선정된 후 부산진구 스포츠클럽에서 진행하는 첫 대회이자 앞으로 부산진구 스포츠클럽을 대표할 수영 선수단을 선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부모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학교에서만 진행되는 전문선수들에 대한 지도를 병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지향하는 지역스포츠클럽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클럽운영에 임할 것입니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지향하는 지역스포츠클럽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클럽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부산스포츠클럽 청소년들이 함께 뛰어노는 이색수업

꽃샘추위가 옷깃을 파고드는 2월, 지난 2월 23일(금)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 스케이트장에서 16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8 부산스포츠클럽 스포츠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 체육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스케이트 종목을 경험하였다. 특히 다양한 학년들이 어울리는 체육 체험인 만큼 서로 이기려는 경쟁심보다는 협동심을 기르는 점을 강조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 직업체험은 승무원·소방관·TV앵커·패션모델·연예인 등 약 70여 개의 직업 활동 경험 통해 청소년들이 직업적성을 찾아볼 수 있는 이색체험의 계기가 되었다.



다 함께 뛰어노는 이색수업 부산스포츠클럽 스포츠체험활동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2월 23일(금) 신세계 백화점 스케이트장과 키자니아에서 부산스포츠클럽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체험활동은 스포츠체험과 직업체험 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은 이색수업을 통해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청소년의 적성을 고려하는 눈높이 체험 ☆

스포츠체험을 통해 운동실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희망을 가지고 체육 활동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직업체험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일에 대한 성취감과 경제흐름을 익히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 부산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체험활동을 통해 즐기고 싶은 청소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첨교육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희망 전도사 역할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 왜 바꿔야 하는가!!!

KSOC AGENDA 2020(체육인 입법서명운동)

재정 확충으로 체육구조 개혁의 동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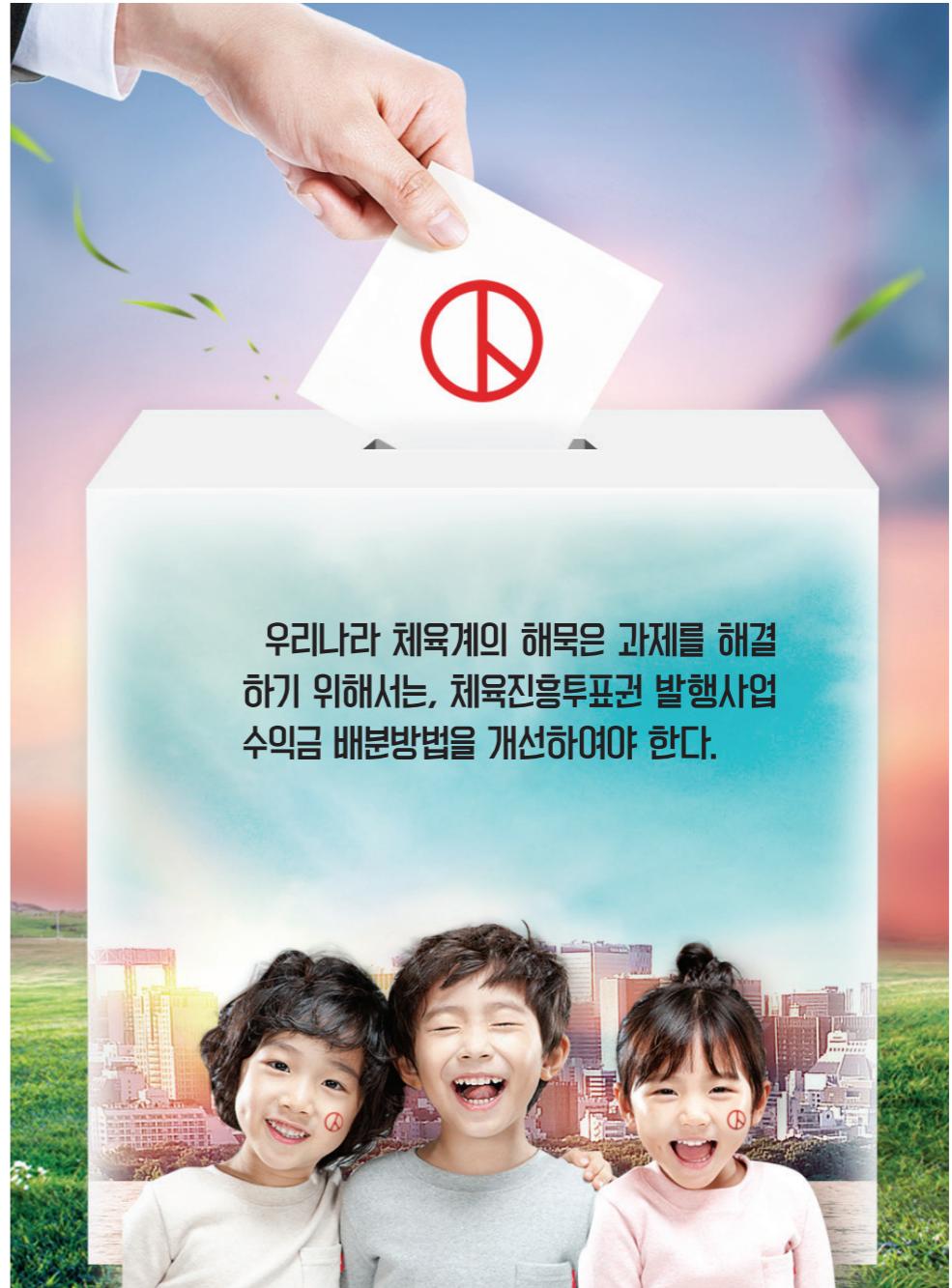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체육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체육계의 숙원이다. 대한체육회는 100년 전통의 '체육종가'로서, 체육 구조를 개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재정력(17년 기준 대한체육회에 배분되는 재정은 전년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28.1%로, 체육 현안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함)의 한계로 인해 개별 사업을 단순 관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며, 체육구조를 개혁할 동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우리나라 체육계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 배분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 개선방법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한체육회에 바로 배분받고자 함.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대한체육회의 자율성 확보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현장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올림픽현장 제27조 제6항 따르면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자율성을 유지하고 올림픽현장의 준수를 막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경제적 압력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정부의 관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을 기금 편입 전에 배분받아야 대한체육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 체육계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 배분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_____ 제27조에 따른 환급금 및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대한체육회에 배분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_____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 부산국민체육센터 시무식 개최

소통과 화합을 다져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월 2일 시민과 더욱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굳은 다짐을 하는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부산국민체육센터장은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꿈나무체능단 새학기 힘차게 도약

새로운 추억의 장 만들 것

꿈나무체능단은 1월 8일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하였다. 2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꿈나무체능단 단원들은 체력을 보충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 지난 2월 23일에는 수료식 및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체능단의 한 강사는 “한 해 동안 체능단을 다니며 많은 정이 들었던 단원들과 이별하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전하며 “이별의 아쉬움은 잠시 뒤로 하고 3월 2일에 입단식을 시작으로 단원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며 말했다.



● 부산국민체육센터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성황리에 마무리

매월 1회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도

부산국민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지역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수영, 체육 프로그램 등 7개 종목 16개 반을 개설, 4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많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방학을 활용한 충전과 도전의 기회를 주어 건전한 방학생활이 되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부산국민체육센터는 매월 1회 어린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진 및 화재시 예방할 수 있는 대피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우고 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수영 ※부가세포함

시 간	프 르 그 램	요 일	참 가 비	대 상
06:00~06:50	새벽수영	A반 월.수.금	성인 51,700	청소년이상
		B반 화.목.토	노인 48,400	
		C반 월 ~ 금	성인 67,100	청소년이상
07:00~07:50	생활수영	A반 월 ~ 금	성인 52,800	청소년이상
		B반 월 ~ 금	청소년 10,500	
09:00~09:50	어머니수영	A반 월.수.금	성인 51,700	성인 여성
		B반 화.목.토	노인 48,400	
10:00~10:50	웰빙수영(격일)	A반 월.수.금	성인 67,100	성인 여성
		B반 화.목.토	노인 52,800	
11:00~11:50	웰빙수영(매일)	C반 월 ~ 금	성인 51,700	성인 여성
		A반 월.수.금	노인 48,400	
14:00~14:50	성인수영	A반 월.수.금	성인 51,700	성인 여성
		실 버 수 영 화.목(토)	44,000	
15:00~15:50	성인수영	B반 월.수.금	성인 51,700	성인 누구나
		C반 월.수.금	노인 48,400	
16:00~16:50	돌고래수영	A반 월.수.금	39,600	초1 ~ 6년
		B반 화.목(토)	33,000	7세~초4년
17:00~17:50	하마수영	A반 월.수.금	39,600	초1 ~ 6년
		B반 화.목(토)	33,000	
18:00~18:50	직장인수영(격일)	A반 월.수.금	성인 51,700	성인 누구나
		C반 월.수.금	노인 48,400	
19:00~19:50	직장인수영(매일)	C반 월 ~ 금	성인 67,100	청소년 이상
		D반 월.수.금	청소년 60,500	
21:00~21:50	야간수영		성인 67,100	성인 누구나
			노인 52,800	
15:00~15:50	주말수영(배영이상)	T	45,000	초2 ~ 6년
12:00~12:50 15:00~15:50 12:00~12:50 13:00~13:50 13:00~13:50 18:00~18:50	아쿠아로보	A반 화.목.토 B반 화.목(토) C반 월.수.금 D반 화.목.토 F반 월.수.금 E반 화.목(토)	성인 60,500 노인 52,800	성인 여성
06:00~07:00 08:00~09:00 10:00~11:00 17:00~18:00 19:00~20:00	자유수영	A반 월 B반 월 ~ 금 C반 월 ~ 금 E반 월 ~ 금 F반 월 ~ 금	성인 53,900 노인 33,000 청소년 46,200	청소년 이상

요가 ※부가세포함

시 간	프 르 그 램	요 일	참 가 비	대 상
06:00~06:50		A반 월.수.금		
07:00~07:50	새벽요가	B반 월.수.금		
08:00~08:50		C반 화.목		
10:00~10:50		D반 월.수.금		
11:00~11:50	웰빙요가	A반 월.수.금		주2일반 38,500
14:00~14:50		B반 화.목		
15:10~16:00	생활요가	C반 월.수.금		주3일반 성인 50,600 노인 38,500 청소년 45,100
16:00~16:50	아로마요가	A반 월.수.금		
17:10~18:00		B반 화.목		
19:00~19:50		C반 월.수.금		
20:00~20:50	직장인요가	A반 월.수.금		
		B반 화.목		
		C반 월.수.금		
		D반 화.목		

생활체육 ※부가세포함

시 간	프 르 그 램	요 일	참 가 비	대 상
06:00~22:00 토 18:50까지	헬스클럽	월 ~ 토	성인 47,300 노인 38,500 청소년 38,500	청소년 이상
06:00~06:50		A반		
07:00~07:50		B반		
08:00~08:50		C반		
09:00~09:50		D반		
10:00~10:50		E반		
18:00~18:50		F반		
19:00~19:50		G반		
20:00~20:50		H반		
21:00~21:50		I반		
18:00~18:50	탁구	A반	월 ~ 목 (강습)	성인 41,800 노인 38,500
19:00~19:50		B반	금 (자유)	성인 이상
20:00~20:50		C반		
16:00~16:50	어린이배드민턴	D반	월.수.금	38,500
16:00~16:50		E반	월.수.금	초3~6년
17:00~17:50	농구	F반	월.수.금	초등 38,500
18:00~18:50		G반	월.수.금	초4년~중등
06:30~07:20		H반	화.목.토	
09:00~09:50		I반	화.목.토	
09:00~09:50		J반	월.수.금	성인 50,600
10:00~10:50		K반	화.목.토	청소년 45,100
14:00~14:50		L반	월.수.금	노인 38,500
15:00~15:50	필라테스	M반	월.수.금	청소년 이상
16:00~16:50		N반	월.수.금	
17:00~17:50		O반	월.수.금	
18:00~18:50		P반	월.수.금	
19:00~19:50		Q반	월.수.금	
20:00~20:50		R반	월.수.금	
21:00~21:50		S반	월.수.금	
15:00~15:50		T반	월.수.금	
16:00~16:50		U반	월.수.금	
17:00~17:50		V반	월.수.금	
18:00~18:50		W반	월.수.금	
19:00~19:50	댄스 스포츠	X반	월.수.금	성인 누구나
20:00~21:30		Y반	월.수.금	노인 38,500

문화 ※부가세포함

시 간	프 르 그 램	요 일	참 가 비	대 상
14:00~14:50	속독·논술	토	25,000	초등~중학
14:00~14:50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国民체력100사업 체력인증센터 운영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체력인증센터를 지난 3월 2일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18년 국민체력100사업은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전문가들이 개인의 체력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평가한 후,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체육복지 국책사업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5년 연속 우수 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3월 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홈페이지(<http://nfa.sports.re.kr>) 및 북구체력인증센터 (☎051-362-7008)로 문의하면 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



초등학생 수영생존(안전)교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북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북구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영생존(안전)교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용수초등학교 외 8 개 학교가 협의 중에 있다.

북구국민체육센터장은 “홍보성 및 일회성 교육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 대처 및 극복능력 체득을 도모하기 위해 수영 실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소식

수영

성인 주5회(68,000) / 주3회(44,000) / 주2회(33,000)
청소년 주5회(60,000) / 주3회(38,000) / 주2회(25,000)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굿모닝	06:00~06: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07:00~07:50	주2회 중/고급 연수	주3회 주5회	
		초/중급	주2회 주3회 주5회	
		연수		
		초급		
		중급		
돌고래	08:00~08:50	고급		
		연수		
		초급	초급(25명)	
		중급		
		고급	중급(25명)	
	10:00~10:50	연수		
		초급	고급(25명)	
		중급		
		고급		
		연수		
거북이	11:00~11:50	연수	연수(40명)	
		초급		
		중/고급		
		연수		
		초급		
	15:00~15:50 17:00~17:50	성인조합		
		연수		
		초급		
		중/고급		
		연수		
굿나잇	19:00~19:50	초급		
		중/고급		
		연수		
		초급		
		중급		
	20:00~20:50	고급		
		연수		
		초급		
		중급		
		고급		
21:00~21:50		연수		
		초급		
		중급		
		고급		
		연수		

*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쿠아로빅

주2회 44,000원 주3회 5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아쿠아로빅	12:00~12:50	초급	50명
	14:00~14:50	중급 고급	80명

방과후 수영

어린이 46,000원 유아 30,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어린이 수영	12:00~12:50	어린이종합반	
	14:00~14:50	어린이종합반 유아(월, 수, 금)	
	17:00~17:50	초급 중급 고급	초급 (25명) 중급 (30명) 고급 (30명)
	18:00~18:50	연수	연수 (30명)

주말수영

어린이 35,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주말수영	토, 일 11:00~11:50		주 2회
핀수영	토, 일 09:00~09:50		주 2회

(월)자유수영

어린이 30,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8,000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월)자유수영	1부 08:00~08:50	월~금 (주 5회)
	2부 12:00~13:50	
	3부 18:00~18:50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일 8:00~8:50 12:00~12:50 18:00~18:50	월~금
	주말 1부 9:00~11:50 2부 13:00~17:50	
	12:00~13:00 수질정화시간(입장불가)	
이용요금	성인 2,3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200원	비회원
	성인 3,3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200원	

스튜디오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명	정원
25명	타비타 (월, 수, 금) 타비타 (화, 목)	06:00~06:50	성인 50,000원
		06:00~06:50	성인 40,000원
		07:00~07:50	성인 57,000원
		19:00~19:50	청소년 50,000원
		09:00~09:50	성인 47,000원
	뮤직필라테스 (화, 목) 파워로빅 (월~금) 파워로빅 (월~금)	09:00~09:50	성인 42,000원
		10:00~10:50	성인 57,000원
		11:00~11:50	청소년 50,000원
		20:00~20:50	성인 57,000원
		21:00~21:50	청소년 50,000원

스트레칭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강습일	정원	(월)회비
건강스트레칭(A)	12:00~12:50	월, 화, 목	30	30,000원
건강스트레칭(B)	19:00~19:50	월, 화, 목	30	30,000원
비디 체인지(A)	15:00~15:50	월, 화, 목	30	30,000원
비디 체인지(B)	16:00~16:50	월, 화, 목	30	30,000원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시간	정원	(월)회비
배드민턴 (월~금)	12:00~12:50 15:00~15:50 16:00~16:50	30 30 30	30,000원<br

구·군체육회 소식

● 중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중구체육회는 지난 1월 16일(화) 중구 광복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중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2017년도 주요사업 실적보고, 예산·결산보고(안) 및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등 체육진흥 발전 방향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격려



중구체육회는 지난 2월 23일(금)~24일(토) 양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한 프리스타일 스키경기를 격려차 관람하여 뜻 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 서구체육회 이사회 개최

서구체육회는 지난 2월 27일(화) 서구청 신관 종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구체육회 임원 해촉(안)과 인정단체 가입 건(안), 2017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총 4건의 심의안건의 내용으로 이사회를 마무리하였다.



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이어서 서구체육회는 지난 2월 28일(수) 서구청 관제회의실에서 “2018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서구체육회 임원 해촉(안)과 인정단체 가입 건(안), 2017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총 4건의 심의안건의 내용으로 대의원총회를 마무리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 2018 해맞이 행사

동구체육회는 2018년도 무술년 1월 1일(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 모여 추운 날씨에도 많은 동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떡국도 같이 먹으며,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소원을 빌고 따뜻한 덕담이 오가는 2018년도를 맞이하였다.



동구체육회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2월 7일(수) 동구 문화원에서 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도 동구체육회의 계획과 포부를 알리며 올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2018년 스포츠후원회 신년 하례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월 9일(금) 영도 산호횟집에서 영도구체육 회장, 수석부회장, 스포츠후원회위원, 직원 및 구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영도구체육회 스포츠후원회 신년하례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포츠후원회 경과보고(스포츠후원회 구성과 발대식, 스포츠후원회 간담회 및 영도구체육회 임원진 간담회) 및 2017년 생활체육대회 지원(상리초등학교 축구부 및 여성축구단 격려금전달 외 10개 생활체육대회지원), 스포츠후원회 기금수지 내역보고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후에는 석식과 함께 조직의 활성화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영도구체육회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3월 5일(월) 저녁 5시50분부터 영도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영도구체육 회장, 한영익 수석부회장, 이사 및 대의원 그리고 직원 및 구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영도구체육회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 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이사 조직 재정비의 건(해촉, 위촉), 준회원단체 가입의 건(파크골프, 에어로빅), 기타 토의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 후에는 영도 제주복국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영도구 체육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 제14회 부산진구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2월 4일(일) 강서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제14회 부산진구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5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였으며 그 동안 일상 속에서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경험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 주었으며 혼합복식 A 우승-김재희, 양문숙, 혼합복식 B 우승-최순호, 이명아, 단체경기 우승-두드림D, 여자단체경기-이정예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부산진구체육회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2월 20일(화) 부산진구 관내 월강에서 「2018 부산진구체육회 정기이사회」와 2월 26일(월)에는 더 파티에서 「2018 부산진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 대의원 총회 주요 안건으로는 2017년 사업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회 동래구합기도협회장기 및 학교폭력예방 호신술대회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2월 10일(토) 동래구 소재 대명여자고등학교에서 200여 명의 합기도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동래구합기도협회장기 및 학교폭력예방 호신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종합순위 1위 천자합기도클럽, 2위 삼손체육관클럽, 3위 화성합기도클럽이 차지하였으며, 대회를 통하여 합기도(동호인들의 화합의 장)이 되었다.



사단법인 동래구체육회·동래스포츠클럽 정기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2월 22일(목) 농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사)동래구체육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사단법인 동래구체육회·동래스포츠클럽 정기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체육 꿈나무 장학증서 수여와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총회 후 만찬을 즐기며 동래구 체육 발전과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제1·2차 이사회 개최

남구체육회는 지난 1월 18일(수)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부회장, 이사 등 21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 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안건으로는 남구체육회 규약 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각종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제2차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2018년도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참석한 이사 전원은 올해 남구체육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이어서 2월 28일(수)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자체 감사 보고 후, 남구체육회 규약 개정 및 2017년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등 체육진흥 발전 방향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합의를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8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개최

북구체육회는 지난 2월 3일(수)~4일(목) 양일간 양산 에덴밸리에서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을 개최하였다. 이날 구성된 가족 스キー 캠프에 북구 구민 40명이 참가하여 가족 서로가 소통과 화합을 하는 소중한 자리를 가졌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격려

동래구체육회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 18일(목) 관동 아이스 하키센터에서 60여 명의 동래구 체육회 임원 및 동호인들과 함께 스웨덴 대 펁란드 하키 경기를 관람하였다.



● 제22회 해운대구체육회장기 초등학교축구대회

해운대구체육회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1월 16일(화) 환영식을 시작으로 1월 17일(수) ~ 1월 21일(일)까지 5일간 장산인조잔디구장, 영산대학교 축구장에서 축구대회를 통하여 축구 꿈나무들의 친목도모 및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증진에 기여했다. 또 '제22회 해운대구체육회장기 초등학교축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21개의 축구 팀 400여 명이 경기에 참가한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대회 결과 창원 덕산초등학교에서 우승, 청주 청남초등학교에서 준우승, 울산 전하초등학교와 경주 입실초등학교가 공동 3위를 차지하며 대회는 막을 내렸다.

● 제20회 사하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2월 25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제20회 사하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8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결과 1위 다대클럽, 2위 한샘클럽, 3위는 사하클럽이 차지하며 대회를 마쳤다.



제13회 사하구족구협회장배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3월 4일(일) 을숙도 구장에서 「제13회 사하구족구협회장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그 동안 선수들의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한편 관내1부 1위는 승학, 2위는 형우, 공동3위는 여울, BK팀이 차지하였으며, 관내2부 1위는 징검다리, 2위는 청산, 공동3위는 캐슬A, 풍진식품기계팀이 차지하며 대회를 마쳤다.



● 2018 어린이청소년 무료스키교실 개최

금정구체육회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1월 3일(수) '어린이청소년 무료스키교실'을 에덴밸리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금정구 관내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친구들과 함께 스키를 체험해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처음 스키를 타는 친구들은 기초부터 배우고, 기존 경험이 있던 친구들도 함께 기초를 다듬고, 전문 강사들의 지도로 초급과정의 리프트만 이용하여 배운 것을 익히는 시간을 보냈다.



금정구배구협회 초대·제2대 협회장 이·취임식 개최

금정구배구협회는 지난 1월 12일(금) '금정구배구협회 초대·제2대 협회장 이·취임식'을 농심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금정구배구 협회장의 취임사에 이어 귀빈들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졌고 이후 배구협회 임원들의 위촉과 임명장 전달을 함으로써 이날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2018 금정구체육회 임원회의 개최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2월 5일(월) 금정구 관내에서 임원회의를 실시하였다. 임원회의 토의 안건으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석의 건(안), 임원회의 개최의 건(안), 2018년 정기총회 개최의 건(안), 이사수첩 제작의 건(안), 2018년 체육회 자체 행사 변경의 건(안)을 토의하였다. 이후 만찬을 즐기며 체육발전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단체격려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2월 17일(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여자 아이스하키 8강전' 경기를 관람하였다.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2018 평창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파이어 아트 페스티벌을 구경하고 러시아와 스위스의 여자 아이스하키 8강전 경기 관람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함께 만들었다.



● 강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강서구체육회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1월 12일(금) 녹산 용가든 회의실에서 5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강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강서구체육회 회원단체임원(체육회임원, 동체육회임원, 종목협회임원) 150여 명이 참석하여 「2018년 강서체육회 신년회」를 개최하여 2017년 추진사업 평가 및 2018년 사업 설명회 등을 보고하였으며 강서구 체육발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구·군체육회 소식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기원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2월 14일(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연제구체육회 임원 및 회원단체 회장, 사무장을 비롯한 관계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기원 관람을 다녀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였다.



연제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2월 21일(수) 거제동 아시아드시티뷔페에서 2018년 「연제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1차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결과 및 2017년도 예산결산 심의의결 하였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연제구체육회 규정 등 3개 규정개정(안), 연제구체육회 감사 선임(안) 등도 심의의결 하였다.



연제구체육회 「체육인 입법서명운동」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2월 23일(금) 연제구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아젠다 2020 체육인입법 서명운동」에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로 체육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연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2월 23일(금) 연제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연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를 계기로 연제구체육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수영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2월 22일(목) 수영구 아쿠아펠리스에서 4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2018 수영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2017년 수영구 체육회 사업결과 및 결산, 2018년 수영구 체육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 2018 어린이체능교실 및 2018 청소년체련교실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1월 25일(일) 에덴밸리리조트 스키장에서 「2018 어린이체능교실」 및 「청소년체련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날 스키교실에는 사상구 관내 초등학생 3~6 학년(40명), 중·고등학생(38명)이 참가하여 오전 스키강습과 오후 자유스키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추운 날씨에도 부상자 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격려

사상구체육회는 2월 8일(목) 대한체육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람을 지원하여 사상구체육회 임원 및 사상구 회원종목단체 동호회원들을 포함한 80명이 강릉컬링센터에서 컬링 믹스더블 혼성 1차전 대한민국과 핀란드 경기를 관람하였다. 1차전 첫 경기는 대한민국이 9:4로 핀란드를 꺾고 1승을 하며 올림픽 첫 경기 승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사상구체육회 이사회 정기총회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1월 30일(화) 사상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2018 사상구체육회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임원진 40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의 주요내용은 2017년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준단체 승격 및 인정단체 가입 의결의 건, 기타 토의로는 평창올림픽대회 경기단체관람에 관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사상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사상구체육회는 2월 2일(목) 사상구청 소회의실에서 「2018 사상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0명의 회원종목 단체장들이 모여 2017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사상구체육회 정관 개정의 건,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회의하였다.

○ 기장군체육회 가족스키캠프 개최

기장군체육회는 1월 2일(화)부터 ~ 3일(수)까지 양일간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스키장에서 「기장군체육회 가족스키캠프」를 개최하였다.





2018년 상반기 총회 개최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각 회원종목단체 체육회 회장과 임원들이

총회를 개최하였다.



부산광역시게이트볼협회



부산광역시궁도협회



부산광역시국학기공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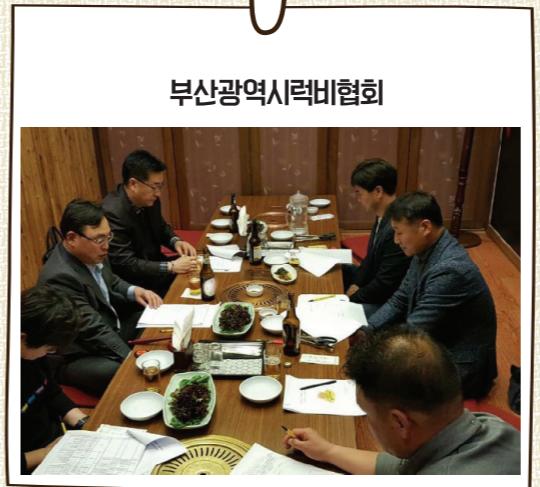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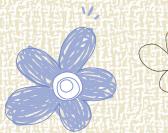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



부산광역시근대5종연맹





부산광역시보디빌딩협회



부산광역시복싱협회



부산광역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세일링연맹



부산광역시볼링협회



부산광역시빙상경기연맹



부산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



부산광역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BUSAN SPORTS PANORAMA

회원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수영연맹



부산광역시수중·핀수영협회



부산광역시스쿼시연맹



부산광역시양궁협회



부산광역시우수연맹



부산광역시육상연맹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



부산광역시조정협회



부산광역시카누연맹



부산광역시축구협회



부산광역시체조협회



부산광역시파크골프협회



부산광역시펜싱협회



부산광역시핸드볼협회



부산광역시탁복상협회



2018년도 제64회 국가대표 훈련개시식 개최 다가올 국제대회에 선전 당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2월 12일 오후 3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자카르타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국제종합경기대회 우수성적 달성과 각오를 다짐하기 위한 '2018년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는 동·하계 18개 종목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493명을 비롯하여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이재근 선수촌장 등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시도체육회 임직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미정(바르셀로나하계올림픽대회 유도 금메달리스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체육인 신년인사를 시작으로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식사,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가대표선수를 대표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와 양궁 금메달리스트 장혜진 선수의 선수대표 선서, 목도리 전달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선수대표로 나서는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와, 양궁 장혜진 선수에게 직접 목도리를 걸어주며,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자카르타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선전을 당부하였다.

대한체육회는 2018년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8월에 열리는 자카르타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 지원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스포츠 외교의 장, 한국의 밤 개최 스포츠 민간 교류의 장이 되길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2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강릉 올림픽파크 내 위치한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의 밤을 개최했다.

한국의 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IOC, NOC, IF 등 국제 스포츠 단체 소속 인사에게 한국을 홍보하고 스포츠를 통한 상호 교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외교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희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반기문 IOC 윤리위원장, 김자용 대한민국 선수단장,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국내·외 스포츠 인사 1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의 밤 행사는 칵테일 리셉션 및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개식사, 유승민 IOC 위원의 환영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축사, 반기문 IOC 윤리위원장, 이희범 평창 조직위 위원장, 도종환 장관의 간배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스포츠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한국 고유의 미를 보여주는 화려한 LED 퍼포먼스의 '생동감' 오프닝 공연과 축연무, 부채춤, 설장고 등 단아하면서도 역동적인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을 담은 '무브 코리아' 축하 공연이 진행되어 깊은 감동을 남겼다. 이기홍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남북한 개·폐회식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집중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표한다"고 인사를 전하는 한편,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코리아하우스가 모든 참가국 여러분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스포츠 민간 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 했다.



NEWS PANORAMA



3 김민석 선수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 대한민국 스피드 스케이팅 차세대 대표주자로 거듭나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17년 대한민국 체육계에 현저한 공을 세워 한국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체육인들에게 수여하는 「제64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 부문은 체육대상,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학교체육, 공로, 연구 총 8개 부문으로 130명 10팀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체육대상에는 2017년도 제8회 삼포로동계아시아경기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금메달 2개(1,500m, 팀추월)와 동메달 1개(매스스타트)를 획득한 김민석(19·성남시청) 선수가 선정되었다. 김민석 선수는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맹활약을 하며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차세대 대표주자로 거듭났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으로는, 경기부문 남자부문에 역도 원정식(28·울산시청) 선수, 여자부문에는 수영 안세현(23·경남SK텔레콤) 선수가 선정되었고, 지도부문에는 태권도 전문희(한성고등학교) 감독, 심판부문에는 레슬링 김오현(대한레슬링협회) 국제심판, 생활체육부문에는 최만집(강릉시수중핀수영 협회) 회장, 학교체육부문에는 심완보(비봉고등학교) 교장, 공로부문에는 최만규(아시아볼링연맹) 부회장, 정신성(대전 근대5종연맹) 회장이 각각 선정되었다.

4 대한체육회, 제3기 대학생 명예기자단 모집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3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2018년을 스포츠와 함께할 '대학생 명예기자단 3기'를 모집하였다.

이번 대한체육회 대학생 명예기자단 3기는 총 15명으로 구성,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주요 종합경기대회 취재와 생활체육에 대한 콘텐츠 기획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체육회 관련 월 주제별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 과제뿐 아니라 조별 콘텐츠 제작 과제도 부여되어, 팀원들과 함께 관심 분야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팀원은 웹툰, 리뷰, 영상, 디자인, 사진 등 선택 지원분야를 공통으로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대학생 명예기자단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원고료와 취재지원비가 지급되며, 대한체육회 주요 행사 및 종합경기대회 개최 시 취재를 적극 지원한다. 활동 수료자에게는 대한체육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팀에게는 포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5 대한체육회,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출범 체육계 미투운동·파벌 등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문화혁신위원회(위원장 김병철·전충렬)를 구성하고, 3월 13일 오후 2시 30분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야기되고 있는 미투운동, 체육계 파벌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체육계의 조직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조직 내·외의 우월적 지위나 입장 등을 이용한 인권 침해,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도모 등에 대해 조사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건의하고, ▲체육계 조직·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한체육회장 직속의 임시 자문 테스크포스(TF)로, 김병철 대한체육회장 특별보좌역(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맡았으며 법조계 인사, 대한체육회 본부장급 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대한체육회는 위원회가 건의한 혁신 방안을 통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조직문화를 발전적으로 쇄신하는 한편, 체육계 전반의 자정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전거야 건강과 즐거움을 부탁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를 타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전거 타기는 봄에 가장 어울리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주말에 근교 라이딩 약속이 있다면, 따스한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상상만으로도 그 한주를 설렘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전거 타기는 관절건강을 위해 권장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타면 오히려 관절을 해칠 수도 있다. 이번 호를 통해 즐겁게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을 지키는 법도 알아보자.

본인에게 맞는 자전거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야 목과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크기와 안장의 높이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키보다 작은 자전거를 탄다거나 혹은 큰 자전거를 타면 불편한 자세로 허리와 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안장 높이가 높거나 낮은 것도 자전거 타는 자세를 망치는 주요 원인이다.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기 위해선 키와 팔길이 등 다양한 신체사이즈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서 가까운 자전거 전문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안장의 높이는 안장에 앉아서 다리를 페달 위에 올려놓고 최대한 편을 때 살짝 구부리지는 정도가 좋다.

페달 굴릴 때는 다리가 11자가 되도록 하자

자전거를 탈 때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다. 페달을 굴릴 때는 다리가 11자가 되는 것이 좋다. 무릎이 자전거의 안쪽으로 기울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되어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 허리 등에 부담을 주게 되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페달에 놓인 발의 위치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편향됐는지 혹은 균등하지 못한 힘으로 페달을 밟지

는 않았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속도를 내기 위해 무거운 기어로 힘들게 페달을 굴리면 무릎연골과 주변의 근육에 부담이 쌓여 관절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기어는 가볍고 경쾌한 느낌으로 조절한 후 페달을 굴리는 것이 좋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거리와 코스 정해야

자전거를 탈 때는 거리와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체력을 믿고 먼 거리를 간다거나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체력이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난다. 봄철 라이딩을 계획하고 있다면 1~2시간 안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적당하다.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이라면 노면이 거친 곳을 피하고 비교적 도로상태가 양호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전거를 타면서 진동이 허리에 전달되면서 가벼운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의 경우 악화될 수 있다. 자전거는 관절건강뿐 아니라 순환기능과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최고의 운동이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들뜬 마음으로 시작했다간 쉽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올바른 방법을 익히고 타는 것이 중요하다.

TIP 2. 자전거 타기 전 필수 준비운동

자전거 타기는 자전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이지만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운동을 해두면 좋다.



TIP 1. 신체 부위에 따른 올바른 자전거 타기 자세

- 허리는 30도 정도 가볍게 굽혀야 노면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다리는 한쪽 페달이 가장 낮은 위치에 왔을 때 다리가 거의 퍼진 상태에서 무릎이 살짝 굽어지는 정도로 안장의 높이를 맞춘다.
- 무게 중심은 양쪽 손잡이와 배꼽이 그리는 삼각형 안에 무게 중심이 오도록 한다.
- 팔은 약간 구부린 상태로 주행해야 땅바닥의 충격이 팔에서 흡수되어 몸 전체로 전달되지 않는다. 핸들은 일자 보다는 뒤집힌 U자 형태가 손목에 부담이 덜하다.

① 앞으로 숙이기

- 바로 선 상태에서 최대한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
- 이때 손이 땅에 닿지 않는다면 본인이 최대한 내릴 수 있는 곳까지 내린다.
- 이 동작을 15초 유지한 후 다시 바로 선다.
- 3회 반복한다.

② 무릎 당기기

- 바로 선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들어 무릎을 당겨준다.
- 그 상태에서 5초 정지한다.
-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포인트.
- 좌우 1세트로 2회 반복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추천 자전거 코스!



수영구 자전거 전용도로

수영강을 앞에 두고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는 APEC나루공원이 있는데 그 건너편 코스를 추천한다. 추천 이유는 해운대 야경을 볼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돼 있기 때문인데 낮에도 좋고, 밤에 달려도 안전한 구간이다. 코스는 수영강을 따라 난 자전거길에서 민락동 수변공원까지 이어진다. 더해서 광안리 해수욕장을 달려 이기 대까지도 이어진다. 반대쪽으로는 온천천에서 동래, 회동수원지까지다.



라이딩의 청량감을 느껴라! 송정-기장 해안길

송정해수욕장에서 출발해 기장군 대변항을 잇는 길인데 송정에서 기장까지 이어진 기장해안로가 아닌 기장군 해동용궁사를 거쳐 지나간다는 점이 특이하다. 해동용궁사에서 계단을 따라 자전거를 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해안가의 절경을 감상하며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용궁사 해안 길은 국립수산과학원을 지나 자갈밭과 숲길로 이어지고 약간의 경사가 있지만, 초보자도 이용할 만한 길이다. 기장군 해弢사를 지난 후 연화리로 접어든 뒤에는 다시 해안을 따라 달린다. 종착점은 기장군 대변항. 바다에 들어갔다가 막 나온 해녀와 미끼를 손질하는 어부가 보이고, 곳곳에 등대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동용궁사를 지나는 구간은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나 선선한 바닷바람으로 라이딩의 청량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노을이 스며든 물결 위를 달려 보자! 낙동강 종주길

사하구 을숙도에서 시작해 북구 화명생태공원까지 이어진 길이다. 자전거길만을 따라 달린다면 총 거리는 17킬로미터 대부분이 평지인 데다 자전거 도로가 넓어서 속도감을 느끼며 탈 수 있다. 특히 을숙도에서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일몰 무렵 노을이 스며든 강 물결을 감상할 수 있다. 가는 길 중간에는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이 나오는데, 공원 내부로 들어가야 강을 따라 난 길을 달릴 수 있다. 화명생태공원이 종착점인 격인데 길은 부산을 벗어나 쭉 이어지므로,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다도해의 풍광이 펼쳐진다! 가덕도길

다도해의 풍광을 지닌 가덕도는 자가용이 있다면 강력하게 추천하는 곳이다. 부산 신항만 앞에 주차한 후 가덕도를 둘러볼 수 있다. 가덕대교를 타고 지나지 않고 부산 신항만 입구로 들어가야 넓게 펼쳐진 갯벌과 그 위에 모인 바닷새, 산 따라 늘어선 어촌 풍경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보려면 경사가 있는 산을 따라 올라가야한다. 끝 틈새로 보이는 남해안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산을 지나고 나면 종착지인 천성마을이 나온다. 거리는 대략 7.5킬로미터 자전거 길이 따로 없고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주말에도 지나는 차량이 별로 없어 도심보다 안전하다. 단, 초보자에게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 어느 정도 자전거로 체력을 단련한 후 이용할 것을 권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를 타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전거 타기는 봄에 가장 어울리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주말에 근교 라이딩 약속이 있다면, 따스한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상상만으로도
그 한주를 설렘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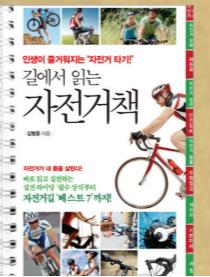
나의 숙련도에 맞는 자전거 도서 추천

자전거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자전거는 뒤에 '여행'이라는 단어만 붙여도 충분히 설렘을 주는 스포츠이다. 또한 자전거는 인간의 힘을 이용해 움직이는 탈것 중에선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발명품으로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으며 인류 10대 발명품에도 들어가 있다. 그런 만큼 자전거에 관련된 연구와 활용 방법에 수만 권의 서적이 시중에 나와 있다. 이 중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숙련도별로 맞는 자전거 도서를 추천한다



● 초급 _ Beginner



길에서 읽는 자전거 책 / 김병훈

초보자를 위한 자전거 실전 가이드북이다. 실전 라이딩 필수 상식부터 자전거길 베스트 7 까지 담은 책이다. 저자의 오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자전거 초보자에게 꼭 필요하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전 '자전거 노하우'가 담겨 있다.

응급처치, 평크 수리, 앞바퀴와 뒷바퀴 빼고 넣기 등 기본적인 자전거 정비 방법이 사진과 함께 친절히 설명돼 있다. 포켓용 사이즈로 구성되어 휴대하기 편한 장점이 있다.



재미있는 자전거 이야기 / 장종수

지난 200년 동안 자전거의 역사에 있었던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자전거를 발명해 훌륭한 탈것으로 만든 사람들과 순수한 마음으로 자전거를 즐겼던 애호가들, 수많은 드라마를 만들어 낸 위대한 인물들(사이클의 황제 / 랜스 암스트롱, 이탈리아를 구한 영웅 / 지노 바탈리, 옐로 저지 없는 영광 / 레옹 풀리도 등)의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책이다. 국내 최고의 자전거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자전거의 거의 모든 것 / 김병훈

자전거의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낸 책이다.

자전거를 탈 때의 올바른 자세, 주행 방법, 점검과 정비 방법, 자전거 포장과 운반 방법까지 이 한 권의 책만 있으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궁금증을 이해하고 지루함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를 자전거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세워서 그 가치와 효과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얻는지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는 안내서이다.



● 중급 - Intermediate

내 몸을 바꾸는 365일 자전거 다이어트 / 이시와타리 야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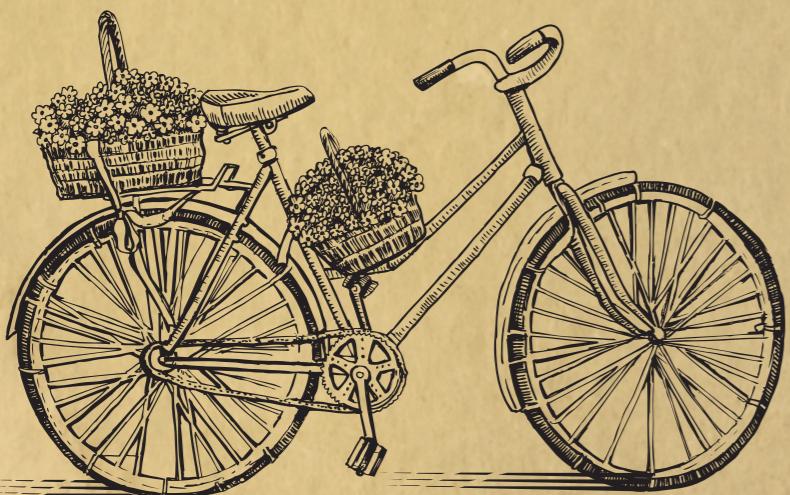


운동신경도 없고 움직이기조차 싫어했던 배불뚝이 아저씨가 자전거를 만나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법을 알려주는데 자전거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무엇인지, 자전거를 비롯한 각종 장비는 어떻게 마련하는지, 자전거 운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음식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진과 함께 친절하게 소개한다. 살을 뺄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가 자전거 칼럼니스트로 변신한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다이어트나 건강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전거로 몸 만들기 4주혁명 / 마츠모토 히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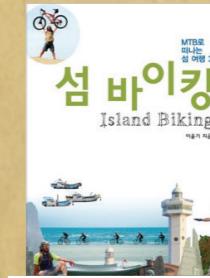


자전거는 몸에도 좋고 경제적인 최고의 다이어트 스포츠이다. 자전거를 그냥 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익힌다면 누구나 원하는 몸매와 건강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까지 예방하는 자전거의 놀라운 효과와 자전거로 살이 빠지는 이유, 자전거 종류에 따른 세팅법에서 올바른 이용법, 더 빨리 더 오래 탈 수 있는 비법까지 자전거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 고급 - Advanced

섬 바이킹 / 이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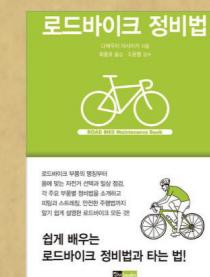
이 책은 자전거와 함께 전국의 섬을 찾았다는 저자의 자전거 여행기를 담은 책이다. 서울에서 가까운 서해 앞바다의 섬부터 긴장감 흐르는 백령도와 저 멀리 흑산도, 가거도 그리고 제주의 부속 섬들과 일본의 대마도와 오키나와까지, 아름답고 볼거리 많은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에도 그만인 최고의 섬 33곳을 엄선하여 소개해준다. 자전거로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지도와 그래프, 상세한 여행정보를 꼼꼼하게 실어 실제 자전거 여행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다.

자전거 정비법 / 니와 타카시



자전거 주행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손쉽게 정비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북이다. 자전거 정비 과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또한 기어나 브레이크와 같은 자전거 자체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생기는 통증을 항목별로 정리해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분을 펼쳐 보며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포켓 사이즈의 핸드북으로 만들어 주행시 간단하게 휴대할 수도 있다.

로드바이크 정비법 / 다케우치 마사하키



주행시 저항이 적고 가벼워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로드바이크가 환영을 받고 있는데 이 책은 펑크나 브레이크, 변속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손쉽게 정비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한 가이드북이다.

로드바이크의 구조 설명과 일상 점검법 등을 기반으로 주요 부품별 정비 기술을 소개하여 스스로 정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로드바이크를 탈 수 있도록 주행법과 스트레칭 방법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했다. 라이딩에 필요한 용품과 복장도 안내하며 포켓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다.

2018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스포츠 733



2018. 5. 10.(목) ~ 5. 13.(일)

충청남도 이순신종합운동장 등 60개 경기장

부산시민이 만든 부산시민 11가지 건강생활 수칙

- 식사는 싱겁게, 골고루, 천천히 먹습니다.
- 술은 3잔 이하로 마시고, 권하지 않습니다.
- 담배는 피우지 말고 피하며,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도와줍니다.
- 하루 30분 걷기와 3회 스트레칭을 실천합니다.
-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고, 예방접종은 미루지 않습니다.
- 손씻기와 양치질은 잘하고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활합니다.
- 일주일에 한번 가족(친지, 지인)과 마음의 대화를 합니다.
- 내가 먼저 이웃과 웃으며 인사합니다.
- 우리 마을을 깨끗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 건강프로그램과 건강한 정책 만들기에 적극 참여합니다.



※ 이 캠페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융성

스포츠7330 완성

하루운동 총량 30분 이상!

일상속 운동실천법
스포츠7330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매일 조금씩, 스포츠 7330으로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씩! 대한민국이 건강해 집니다.

Let's walk together!

START

스포츠7330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하루운동 총량 30분 이상!
버스정거장에서 집까지 걸기 5분
회사에서 지하철역 가볍게 걸기 5분
사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10분
지하철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10분
버스정거장까지 가볍게 걸기 5분